

제목 - 짐승

단편 시나리오

최종고_250312~

등장인물

김나진

이상화

김무지

우미호

시나리오

1. 나진의 집 / 침대 / INT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는 김나진. (악몽은 과거 상화-무지 사건이 인서트 형태로 지나간다)

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면, 그의 온 몸에 구속을 위한 장치들이 팽팽하게 당겨진다.

나진이 익숙하게 장치들을 푼다. 그러나, 그는 팔과 다리의 쇠사슬은 풀지 않는다.

2. 나진의 집 / 화장실 / INT

나진이 화장실에 가서 씻고, 수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고... 오히려 손에 잡힌 머리끈

상화의 머리끈이다. 그걸 본 순간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 상화와 무지.

둘은 화장실 밖에서 연인이 데이트하는 소리를 내고 있고, 나진은 닫힌 문 쪽을 본다.

벌컥, 문이 열리고 무지가 들어온다. 그는 나진이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특이한 점은 무지의 꼴이 누구랑 싸운 것처럼 핏자국과 맞은 자국 등이 있다는 것.

무지 (콧노래) 뜨르른 뜬~, (소변 튀자) 에~이 씨발~

무지는 나진의 앞에서 소변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 체크까지 하고 나간다.

다시 닫힌 문이 열리고, 상화가 들어온다. 엄청 크고 동그란 선글라스를 낀 상화는

들어와서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정돈하고, 웃는 연습 등을 한다.

그러다, 상화가 선글라스를 내리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고, 방금 난 것처럼, 핏기가 있다.

상화 쥐. (나진에게서 머리 끈을 뺏어간다)

상화는 나진에게 보란 듯, 일부러 시선을 나진에게 두고, 머리를 묶는다.

포니테일 머리가 된 상화가 나가고, 나진이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 문을 연다.

그러자, 문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상화와 무지가 보인다. 나진의 표정이 썩는다.

INSERT. 나진의 침대 밑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소리.

무지와 상화는 신경쓰지 않는다. 나진만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고 놀란다.

3. 나진의 집 / 침대 / INT

나진의 침대 밑 어두운 공간에서 묶인 무언가 나오려고 쿵쿵댄다.

기어코 튀어나와, 침대를 지나 화장실 앞에 상화와 무지를 향해 달려든다. (POV)

그것은 나체상태(나체 아니고 속옷만 입을 수 있음)로 사족보행하는 짐승 나진이다.

상화, 무지 (비명을 지르고, 피하지 못한다)

화장실에 있던 나진이 둘 사이로 튀어나와서, 짐승 나진을 제압한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고, 짐승나진이 나진을 물지만, 나진은 억지로 제압해서

다시 침대 밑으로 넣고, 묶어버린다.

침대 밑에서 캉캉대는 짐승 나진,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기댄 나진에서...

타이틀 <짐승>

4. 지하철 / INT

쇠사슬, 수갑 등을 찬 나진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피한다.

그는 무표정으로 그 시선들을 견딘다.

5. 미호 상담소 가는 길 / EXT / D

나진이 길을 천천히 걸으며, 골목을 걸어간다. 그가 시선을 돌리다가 골목 안쪽을 본다.

거기엔 커플이 있는데, 웃으면서 안고, 뽀뽀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인다.

나진은 고개를 핵 돌린다. 그러자, 오던 차(자전거)를 못 보고 치일 뻔한다.

나진 죄송합니다.

운전자는 욕을 하려다가, 나진의 꼴을 보고 지레 기겁해서 빠르게 간다.

나진이 다시 상담소로 향한다.

6. 미호의 상담소(진료실) / INT

미호와 나진이 마주보고 앉아있다. 미호가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나진은 고개를 떨군 채로 아무런 말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프레임 밖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상화와 무지가 미호에게 대답한다.

둘의 모습은, #2의 모습 그대로다. (디테일 수정 필요)

둘이 신나서 설명하고, 열변을 토하는 동안 나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상화 여자친구의 바람을 알고 있었고, 그날 증거를 잡으려고 들어갔어요

현관문 앞에서는 좀 망설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간 거죠.

무지 그러고, 나서 현관문을 보는데 신발이 있어, 두칸데, 남자랑 여자꺼.

근데,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를 유의해서 들어보니까...

뭔 소리가 나, 그래서 방 안으로 가는데...

미호 ... (가만히 듣고 있지만, 비판적인 눈초리다)

상화 보여요, 손이 보여, 제 여친, 그러니까 전 여친 손이 보이는데...
흔들려, 그리고...

무지 다른 남자가 있어, 그거 보니까 심장이 마아-악 뛰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툭. 쓰러져요, 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됐던 거죠.

미호 네, 그건, 전에도 나진씨가 말씀하셨죠, 제가 본 수사 기록에도 있었구요.
(상화와 무지 말고, 나진 쪽을 보면서) 그때, 어땠는지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때 나진씨의 느낌, 감각, 감정, 이런 걸 듣고 싶어요.

상화와 무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둘이서 속닥인다. 둘은 미호가 답답하다는 태도다.

미호 (대답이 오지 않자) 나진 씨, 정신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아요?

상화 네.

미호 안다구요?

상화 제가 발작을 하더니, 정신을 잃은 상태로 여자친구와 그 남자를 공격했잖아요.

미호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무지 다쳤죠. (팔 상태 보여주며) 남자는 팔이 꺾였고...

상화 여자친구는 얼굴이 찢어져서 상처가 길게 났고... (얼굴)

미호 그리고요?

상화 네?

미호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구요.

상화 ...

무지 (나서며) 경찰이 왔고, 제가 잡혔잖아요, 그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미호 지금, (쳐다보며) 척을 하고 있네요.

무지 ...뭐요-.

미호 출동한 경찰이 뭘로 나진씨 머리를 가격했나요?

무지 ...뭘, 삼단봉이겠죠.

미호 (한숨, 째려보며) 여기까지... 저한테까지 와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지 ...네?

미호 나진씨, 본인이 지금 뭘 잘못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지 ...

상화 뭘, 제가 기절했으니까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미호 그래,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왜 모른다고 안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이 얘기에요, 나는 정신과 의사이자, 나진씨 상담사예요,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고개 저으며) 사건도 이미 조사가 끝나서 바뀔 것도 없어요.

상화 (둘러대듯) ...혹시 알아요?

미호 본인도 알죠? 바뀔 게 없다는 거.

상화, 무지 ...

미호 (답답한듯) 나는 지금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당신이, 아픈 사람이
도움을 거절해? 그게 이해가...

무지 (말 자르며, 째려보고) 선생님.

미호 ?

무지 선생님 저번에 말했죠? 동생? 동생 생각 난다 했잖아.

미호 그랬죠, 그게...

무지 (또 자르며) 저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 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동생을
투영해서 본 들, 뭐가 해소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을 가지고 뭐 저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게~

미호 (한숨) 지금 제가 동생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해서 문제라고, 못 믿겠다는 건가요?
나진씨. (충분히 텀을 둔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상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미호 어떤 남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동시에 성욕과 소유욕도 느꼈다 해봅시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감정과 감각이 섞였으니까
불순한가요?

상화 ...맞죠? 맞잖아요? 맞잖아? (무지와 나진 보며 동의 구한다)

미호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동시에 섹스를 하고 싶다 느끼면, 잘못됐고
그 감정이나 욕망은 불순하고, 별로라는 애긴데...? 그게 맞나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성욕, 소유욕, 질투를 느끼면 안되나요?

상화 ...

미호 저는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목적에 돈이 있으니까, 하는 행동에
순도가 낮아졌겠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관음증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또 불순한 게 섞였으니까 안되겠다.
그러면 아예 일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상화 ...

미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을 판매하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죠? 그들은 편의점 판매를 위한 도구나 로봇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려고 했던 신형 스마트폰을 떠올릴 수 있죠?
일하러 오기 전에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랑 싸워서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일 끝나고 놀러가기로 해서 그거에 대해 생각이 차 있거나... 아무튼, 이해 가요?

무지 뭐... 알았으니까...

미호 정리하면 나진씨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픈 상태고 치료와
관심이 필요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죠, 지금 모습을 보세요, 수갑차고, 쇠사슬
피폐해졌고, 말랐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 네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니까, 불순하다. 의도가 불순하다. 그러니, 나한테
손 대지 마라. 그런 거죠? 의사를 찾아와서, 죽어가고 있지만, 네 의도가, 감정이
욕망이 순수하지 않으니, 난 치료받지 않겠다.

무지 ...

미호 이럴거면, 그냥 가요. (사이) 진짜로.

미호가 한숨을 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녀는 여전히 나진을 째려본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진이 미호와 무지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선다.

나진이 천천히 발을 끌면서 나가려고 하면...

미호 (툭 던진다) 근데, 내 동생이 누군지 알아요? (사이) 나진씨가 병신 만든
김무지, 무지 그 애가 내 남동생이에요. 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나진 (놀라서, 헛 돌아선다)

미호 뭐, 성씨를 보면 알겠죠? 우미호, 김무지, 친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나진 말이 됩니까? (상화와 무지는 사라져 있다) 지금 그걸 믿으라... (머리가 아찔하다)

*나진이 어지러워 할 때, INSERT로 나진의 침대 밑에서 무언가 쿵쿵대며 나오려고 하는
장면이 삽입된다.

미호 나진씨, 나진씨는 본인이 벌인 그 사건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했다고 발작하며 쓰러진 다음에, 정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달려들어서 공격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 괜찮아요?

나진 ...(휘청이다가 쓰러지려고 하고) 가세... 나가세요! 나가!

나진이 쓰러진다. 고통스러워하던 그가 일순간 영혼이 빠져나간 것 마냥, 멈춘다.

미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나진이 눈을 번쩍 뜬다. 그의 눈동자가 초록색이다.

나진이 미호에게 달려든다. 미호가 뒤로 넘어진다. 나진이 덮치지만, 미호 도망간다.

미호 (팔이 물려서 비명) 으악!

나진 (사족보행 자세로, 달려들며) 크르르...

미호가 도망다니다, 나진의 사슬이 꼬인 것을 본다. 나진이 다시 달려들고...

미호가 꼬인 사슬을 이용해, 테이블 밑에 나진을 묶어둔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고

미호 밑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혹은 직원)들이 달려와서 나진을 제압한다.

숨을 돌리는 미호와,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가는 나진의 얼굴에서...

7. (과거 사건 당시) 나진의 집 앞 / EXT / N

과거 나진이 자신의 집 앞에서 도어락을 누를까 말까 망설인다.

그의 손가락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나진은 손으로 마른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진다.

결심한 나진이 문으로 들어간다.

8. (과거 사건 당시) 나진의 집 안 / 현관 / INT

나진이 현관에 놓여진 두 켤레의 신발을 본다. 남자 것 하나, 여자 것 하나.

나진은 신발을 멍하니 쳐다본다. 그러다, 정적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 삐걱, 삐걱, 삐걱.

나진의 숨이 떨린다. 숨을 한번 크게 쉰 나진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간다.

9. (과거 사건 당시) 나진의 집 안 /

나진이 열린 문 사이로 상화의 손을 본다. 가구를 붙잡은 그녀의 손이 흔들린다.

그때마다 소리가 난다. 나진은 상화가 움직여 무지에게 스킨십하는 걸 보다 툭 쓰러진다.

누군가 다가온다. 정신을 잃어가는 나진을 흔들어 깨운다.

나진이 올려다보면, 미호다.

10. 미호의 상담실 / INT

나진이 정신을 차리면, 미호의 얼굴이 보인다. 흐린 시야의 그는 주변을 살핀다.

나진은 지금 상담실에 있는 리클라이너에 있다. 그가 몸을 추스린다.

괜찮은 걸 확인한 미호는, 커피를 마신다. 그녀의 팔에 간단한 응급처치가 된 게 있다.

나진은 미호의 팔을 보고, 입술을 깨문다.

나진 ...그래서?

미호 네?

나진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셨죠? ...사과?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뺀 뒤)

(우울하고, 씁쓸한) 죄송합니다.

미호 그건 이미 충분히 느꼈어요, 죄책감 그런 것들. (나진이 올라와서 얼굴 보면)

저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나진 다 아시잖아요.

미호 아니요, 여태까지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내 의도를 의심해서였다면... 이번엔

도와줘요, 나는 그 일을 제대로 알고 싶어.

나진 ...

미호 내 말에 따라와줘요,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말하기 싫었으면 굳이

그 꼴을 하고 여기까지 안 와도 됐잖아, 그러니까, 왔으니까 한번...

나진 (고민하다, 나직하게) 물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미호가 물을 따라서, 준다. 나진은 물을 마시고, 미호가 앞에 앉는다. 둘이 마주본다.

미호 여자친구, 그러니까 전 여친, 이상화씨랑 어떻게 만났죠?

11. 대학교 강의실 / INT

동아리실에서 무뎀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 나진에게 활달한 상화가 웃으며 달려든다.

상화가 들이대고, 애교를 부리는데, 나진은 싫은 듯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좋아한다.

나진(N) 학교에서요,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졸업할 땐데, 이런 말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쪽에서 먼저 들이대고, 그랬어요. 그게 나를 좋아한 건지는...
 이제 와선 모르겠지만...

상화가 나진에게 기대면, 나진은 계속 책을 읽고 있다. 그녀는 점점 더 치댄다.

12. 미호의 상담실 / INT

미호 고백도 여자 쪽에서 했나요?
나진 ...복잡해요.
미호 복잡하다?
나진 말을 먼저 꺼낸 건 전데... 좀, 그게...
미호 말하기 힘든 지점인가요?
나진 ...

13. 대학교 강의실 / INT

(#7과 이어져서)

상화 야, 야아~

나진 (상화 보면)

상화 이따가 보자? 같이 코노라도 가자구~.

나진 나 할 거 있... (하고 뭘 말하려고 하지만)

상화 (이미 일어나서 가며 귀엽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나진이 도대체 어째야 되지 하는 표정을 짓는다. 근데, 뒤에서 다른 남자가 다가온다.

무지 둘이 사귀냐?

나진 아니요.

무지 사귀네, 백퍼네 이거. 티가 다 나더라, 티가 다 나.

나진 ...

무지 야, 뭘 그러냐, 다 경험인데.

나진 그게... 솔직히 말하면 (주위 눈치 보고) 잘 모르겠어요.

무지 잘 모르겠다고?

나진 그러니까, 뭐 친하죠, 친한데, 그게 무슨 사귄 정도인지, 아닌지를 그게...

 저는 원래도 연애에 관심이 별로 없고, 상화가 막 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긴 하고... 친구는 맞는데, 그 이상의 느낌은...

무지 야, 그냥 진짜 다 경험이라니까? 진짜? 이 나이대에는 원래 다 모른다니까

 해봐. 이 시기에만 할 수 있어, 진짜. 경험 삼아라도 그냥 해봐라.

나진 ...(그런가? 하는 표정)

미호 복잡한 이유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이) 나진씨는 자신이 상화씨를 좋아하는지
 아닌 지 확신이 없는데 주변에서 부추김이 있었고, 그래서 고백했다는 건가요?
나진 ...그리고, 그리고... 정말 엄격하게 생각해봤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저는 당시에 개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미호 좋아하지 않는데, 사귀자고 말했네요...? 왜 그랬죠?
나진 ...
미호 표현이 어려워요? (나진 표정 보곤) 넘어가요, 그러면 고백은 어땠나요?
나진 그냥, 툭 던지듯이 했어요.

나진의 옆에 상화가 나타난다. 나진과 상화가 즐겁게 통화하던 중이었고...

상화 그래서, 이제 할 건 다 했어?
나진 어, 근데... (망설) 근데...
상화 뭐? 왜?
나진 야, 그냥 우리... 만날래?
상화 어?
나진 ...
상화 만나자고? 우리? (심각해지는 말투와 표정) 만나자...?

정적.

나진 (미호 보며) 그때, 한참동안 반응이 없었어요 서로. 아무래도, 개도 사실 저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호 ... (끄덕끄덕) 네, 그러면, 연애 기간엔 문제가 있었나요?
나진 딱히 없었...
상화 (끼어들며, 정색) 있었지.

나진이 말을 멈춘다. 그는 상화 쪽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미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진의 이상하다는 건 알아챈다.

미호 다툼은 그래도 다 있잖아요, 싸운 적 있죠?

나진 ... (고개를 살짝 떨군다)

상화 (고개를 저으며) 그래, 그게 맞아, 너는 어차피 말 못해.

미호 말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상화 되겠냐고. (비웃음) 네가 말할 수 있겠어? 너 나랑 사귀고 나서 선비처럼
굴었는데, 내가 한번 하자고 꼬시고, 실제로 박고 나니까, 계속 했잖아 우리.
그 이후로 너 나한테 뭐든 갖다 바쳤잖아, 섹스하고 싶어서. 과제도 대신 해주고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 그치? 대가리가 정액으로 가득 찼잖아, 너.

나진 ...(호흡이 거칠어진다)

상화 말 할 수 있겠어? 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만난 진짜 이유를, 이 여자한테
떠들 수 있냐고? 나는 애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자위하는 것 보다 애랑
떡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만났다. 그런 쓰레기다. 할 수 있냐고?

미호 나진씨,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상화 못 벗어나, 너는. 넌 못해.

나진 (상화가 있는 쪽을 노려본다)

상화 (비웃음) 말할 수 있냐고. 못해, 근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진 ?

상화 내가 지금 너를 자극하면, 다시 '그게' 튀어나올 거야. 알지? 그러면, 그게
알아서 처리해줄 거야. (웃음) 어차피 너는 정신을 잃을 뿐이야. 아무런 책임도
없어~. (뒤에서 무지도 웃으며 다가온다)

미호 (나진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눈 감아요, 눈 감아, 얼른.

미호는 나진이 상화에게 흘러 자신에게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움찔움찔하던 그녀는 눈 꼭 감고 나진의 뺨을 한 대 때린다. 짹!

미호 정신 잡고! 내 말 들어, 눈 감아요 일단!

나진 (눈을 꼭 감는다)

미호 숨을 최대한 크게 마셔요, 진짜 배, 폐, 아니 상체가 뽕뽕해서, 터질 것 같이.
그리고, 내쉬어요, 진짜 몸 안에 모든 공기를 버리는 것처럼, 다 정말 끝까지.

나진 후-...

미호 한번 더 하고... (사이) 눈을 살짝, 정말 살짝만 떠볼까요?

나진이 눈을 살짝 뜬다. 그의 앞에 여전히 상화와 무지가 있다.

둘은 나진이 눈을 뜨는지, 얼굴을 바짝 대고 그를 보고 있다.

나진 (다시 질끈 감는다) 아직 있어요.

상화 나진아, 나진아, 저 사람 말 믿어?

무지 냅뉘, 강 믿게, (상화를 끌어당기고) 저새끼 원래 찌따기질 있어서, 좀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정신을 못차려~. (안은 상태에서, 스킨십)

미호 (나진의 미간 찌푸러지는 걸 보고) 뭐가 보였든, 뭐라고 하든,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면 돼요, 그걸 따라해보세요.

나진 따라서...요.

미호 억양, 톤, 감정, 신경 하나도 쓰지 마요, 그냥 국어책, 국어책도 아니야 옛날에
AI 음성 그런 느낌으로 또박또박.

상화 (비꼬듯) 애쓰네~, 근데 앤 안돼, 되겠냐고, 그런 거 할 용기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과거부터 달랐어.

무지 (웃으며) 학교에서, 알지? 나한테 너랑 사귄지 말지를 묻더라.

상화 진짜? 진짜로?

무지 에혀... 이래서 여자는... 씹, 시발, 팩트를 들이밀어도 아니라고 뽕뽕대.
(담배를 찾듯, 몸을 뒤흔다가, 짜증낸다)

미호 니 말에 따르면, 나진 씨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자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게 당연하다?

무지 그치-? 그거지, 바로.

미호 그러면, 말이야, 물어볼 게 있어, 우리 그 날을 떠올려 보는 거야.

무지 언제? 뭘 날?

미호 사건이 벌어진 날, 나진씨가 여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한 날.

15. (과거 사건 당시) 나진의 집 / 침실 앞 / INT

(#9에서 이어짐) 나진이 쓰러진다. 방 안에 있던 상화와 무지가 뛰어나온다.

무지 이 새끼 뭐야? 뭐지? 오늘 늦게 온다고 그랬잖아?

상화 어떡해애...!

무지 아... 씨-, (다가가지만 멀찍이) 야, 야, 야, 나진아?

상화 ...오빠, 그냥 일단 가자.

무지 뭐?

상화 가자구우!

무지랑 상화가 방 안에서 대충 챙겨서 나진의 몸 위를 넘어 나가려고 한다.
그때, 나진의 눈이 떠진다. 초록색 안광이 번쩍인다. 그가 네 발로 일어선다.

16. (과거 사건 당시) 나진의 집 / 현관 / INT

현관으로 우당탕탕 오는 상화와 무지. 둘은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틱. 집의 불이 다 꺼진다. 굳어버린 상화와 무지의 뒤에 초록색 안광이 뜬다.

상화가 먼저 비명을 지르고, 무지가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으로 무지를 끌고 가는 짐승 나진. 무지의 비명소리 들리고.

상화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만, 짐승 나진이 또 달려가서 그녀를 잡아온다.

바닥에 눕혀진 상화. 나진은 그녀의 냄새를 개처럼 쿵쿵 맡아서 내려간다.

그때, 뒤에서 미호가 등장한다. 방금 나진한테 당한 무지도 힘겹게 등장한다.

미호 네 말에 따르면, 이 장면에선... 나진 씨가 이긴 거 아니야?

무지 ...

미호 그러면, 찌따가 아니라, 다시 탈환에 성공했으니까, 마땅한 보상을 가져가는
승리한 수컷이야?

무지 (기분 나쁜) 이걸, 애가 한 게 아니잖아, 씨발아.

미호 그럼 누가했어?

무지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가지고, 기억도 못한다고! 그게 저 새끼 능력이냐?

미호 니 논리대로 생각해봐, 곰 두마리가 있는데, 싸웠어, 한 마리가 달려들었는데...
다른 곰이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젓다가 그게 뺨! 맞고 곰이 쓰러졌어.
그럼 누가 이겼어?

무지 ...개소리는 씹.

미호 네가 틀렸다고. 인정하라고.

무지 (눈 앞까지 얼굴 들이밀며) 아가리 안닥쳐? 안 맞다고, 이 상황이랑 니가 설명한
거랑 달라. 어? 니년은 모르는 게 많아, 알간?

미호 내가 뭘 모르는데?

무지 이 다음 상황?

무지가 그렇게 말하더니, 손에 들린 술병으로 나진을 내려친다. 와장창 깨지는 병.

짐승 나진이 쓰러진다.

미호 (낮빛 하나도 안 변하며) 김나진은 이 장면을 몰라, 네가 말한 것처럼
의식이 없었거든, 아예 기억을 못해.

무지 (여전히 노려보고 있다)

미호 너 누군데?

무지 씨발, 니갓게 내가 설명해주면 알겠냐?

미호가 무섭게 찌러본다. 그러면, 무지가 사라진다.

17. 미호의 진료실 / INT

나진 선생님...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미호 나진씨, 잘했어요, 네, 잘했어, 아주, 근데 여기서 더 집중해보자, 응?
느껴지는 거, 그걸 말해줘요.

나진 있는 그대로요? (미호가 끄덕인다) 이걸 어떻게...

미호 괜찮아요, 괜찮아,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 뭐, 촉감이나 이런 거 전부! 틀려도,
잘 표현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진 ...보여요.

미호 뭐가요?

나진 짐승이요.

18. 나진의 집 / 거실 / INT

의자에 묶여있는 나진의 코 앞에 얼굴이 있다. 짐승 나진이다.

짐승 나진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진을 보며, 으르렁대고 있다.

나진 선생님...? 어떻게 하죠? 네?

짐승 나진 (점점 더 나진에게 다가간다)

나진 제발, 선생님, 지금 제발! 빨리 뭐라고 말 좀...!

짐승 나진이 입을 찢어 벌리고, 나진을 삼킬듯이 달려든다.

나진이 피할 수 없어서 눈을 꼭 감는다.

19. 나진의 집 / 침실 / INT

나진이 다시 눈을 뜨면 무지와 상화가 서로 껴안고 스킨십 하고 있다.

그 옆을 보면, 짐승 나진이 사족 보행 상태로 그 둘을 보면서 짓고 있다.

나진은 그 모습을 관찰하는데 짐승 나진은 눈이 뒤집힐 듯 짓고, 달려들려고 하면서 침도 질질 흘리고, 발기된 모습도 보인다.

나진은 인상을 쓴 채 그 모습을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짓는 소리가 한글로 들린다.

짐승 나진 내 꺼야, 내 꺼, 내꺼! 내꺼라고!

나진 (그 소리 듣다가)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금 보이는 게...!

공간에 빛이 감돌고, 화이트 디졸브로 #20으로 연결

20. 미호의 진료실 / INT

진료실로 돌아온 나진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리를 지른다.

나진 선생님, 제가 본 게... (근데, 나진의 시야에 미호가 없다)

미호 켜, 케...엑.

나진이 소리가 나는 바닥을 본다. 거기엔 짐승 나진이 미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나진 선생님!

나진이 달려든다. 그가 두 손으로 짐승 나진을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꿈적도 안 한다.

죽어가는 미호. 눈꺼풀이 돌아있는 짐승 나진은 힘을 더 꺾 준다.

나진 씨발... 제발... 제발...! (애를 써도 안 된다)

짐승 나진이 오히려, 뒷 발로 나진을 밀어버린다. 나진이 날아간다. 쿵.

나진은 고통스러워 하면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손에 묶인 사슬을 본다.

나진의 눈동자가 떨린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눈빛. 그러나, 미호의 고통스런 신음에

나진은 곧장 달려들어서, 짐승 나진의 목에 사슬을 건다. 그걸로 조여서 당긴다.

짐승 나진이 간신히 끌려 나오면서, 나진과 씨름을 한다.

나진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도구들을 이용해서, 짐승 나진을 제압하고 쇠 목걸이처럼 목줄을 채워서, 구석에 묶어놓는다.

미호 (숨을 몰아쉬며) 케헉, 헉-.

나진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6에서 주사를 놔던 인물이 들어온다. 나진이 미호를 부축해서 그에게 넘긴다.

미호가 진료실에서 나가고, 남겨진 나진이 방 안에 비치된 거울을 본다.

거울 안에 나진은 한쪽 눈이 초록색이다.

END